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7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1.29~2026.02.04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3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평가, 오영훈, 청년, 등록, 응답
경제·관광	판매(만감류), 상승, 경영, 평가, 소상공인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예방, 성금, 차량

※ 분석 기간 : 26.01.29.~26.02.0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 강화 및 퇴출 제도</li> <li>- 민선 8기 도지사 및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li> <li>- 전국 1위 교통문화지수 및 지자체 혁신 대상</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 출마 의지 및 당내 경선 자신감</li> <li>- 서귀포시민과의 대화 및 지역 현안 해결</li> <li>-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인재 양성 협약</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제주 청년통계 및 인구 소멸 위기</li> <li>- 실질적인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 확대</li> <li>-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정책 효능감 제고</li> </ul>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li> <li>-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완화 논란</li> <li>- 각종 행정 및 프로그램 참여 등록 활성화</li> </ul>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응답형 버스 '옵서버스' 운행 전면 확대</li> <li>- 미국산 만다린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li> <li>-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응답 분석</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판매(만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만감류, 대형마트 판촉행사서 목표치 2배 달성</li> <li>- 제주산 레드향, 홈쇼핑 첫 방송서 전량 완판 기염</li> <li>-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만감류 특별행사 추진</li> </ul>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제주 소비자물가 2.0% 상승하며 5개월째 안정세</li> <li>- 제주 수산물 가격 12.1% 급등하며 8년 만에 최고치</li> <li>- 제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전년 대비 221% 폭증</li> </ul>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농협, 혁신 성장을 위한 '3S 경영원칙' 본격 가동</li> <li>- 제주은행, 여성 리더 역할 확대로 조직 역동성 강화</li> <li>- 제주 범농협 임직원, 청렴 농협 실현 위한 자정 결의</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바가지 요금 등 논란 축제 '즉시 퇴출' 제도 시행</li> <li>- 제주도,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광역단체 1위</li> <li>- 관광개발사업장 지역경제 기여도 점검 및 실적 공개</li> </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한 '안심 대출전환' 업무협약 체결</li> <li>-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선거 출마자에 7대 정책 과제 건의</li> <li>-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그냥드림' 사업 성과와 본사업 확대 추진</li> <li>- 고령장애인 맞춤형 복지 욕구 분석 및 정책 제언</li> <li>- 도교육청-교사노조, 교원 근무여건 및 복지 합의</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리, 풍력발전 수익 활용한 파격적 출산장려금</li> <li>- 폐교의 재탄생, 지역주민 위한 생활체육·주거 공간</li> <li>- '삼다수 Happy 공모를 통한 지역 돌봄 강화</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 대비 5대 선거범죄 예방 및 엄정 단속</li> <li>- 노로바이러스 급증에 따른 개인위생 및 방역 강화</li> <li>- AI 기반 중증심혈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체계</li> </ul>
	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 조기 달성 및 폐막</li> <li>- 도내 주요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 성금 기탁</li> <li>- 익명 기부자와 소액 기부자가 만든 나눔의 기적</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수사 결과</li> <li>-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등록 비중 확대</li> <li>-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의무화</li> </ul>



<b>정치·행정</b>	<b>평가</b>	<p>강화를 위해 다국어 안내물 제작과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용태세 향목에 가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평가 결과에 따라 유망, 우수, 최우수 등급으로 나누어 축제육성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문제가 발생한 축제는 예산 보조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병행함.</p> <p>- <b>민선 8기 도지사 및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도지사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부정 여론 팽팽 언론 5사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임.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으나 5060세대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오 지사는 도정 성과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소통 강화 의지를 밝힘.</li> <li>· 김광수 교육감 교육행정 긍정 평가 과반 기록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8%를 기록해 부정 평가 2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직 프리미엄을 확인함. 특히 보수 성향층과 40대, 6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져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됨.</li> </ul> <p>- <b>전국 1위 교통문화지수 및 지자체 혁신 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문화지수 전국 광역지자체 1위 달성 성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제주도가 85.26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교통 안전 의식이 향상됨을 입증함.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제한속도 준수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안전띠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준수율은 하위권에 머물러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li> <li>·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제주시는 20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주관한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 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 김안근 시장 취임 이후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음.</li> </ul>
	<b>오영훈</b>	<p>- <b>지방선거 출마 의지 및 당내 경선 자신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선출직 평가 하위 20% 미포함 및 재선 도전 시사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당내 경선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 중앙당 정책 오디션에서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도정 성과를 강조했으며, 당내 공천 일정과 경선 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공식적인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li> <li>· 경쟁 후보들의 도정 비판에 대한 입장과 대응 문대림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li> </ul>

<b>정치·행정</b>	<b>오영훈</b>	<p>의 도정 비판에 대해 정책적 토론은 환영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은 지양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 특히 BRT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부에서 이어진 정책의 연속성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경쟁과 협력을 당내 후보들에게 주문함.</p> <p>- <b>서귀포시민과의 대화 및 지역 현안 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환경보전분담금 대안 제시 서귀포시민과의 대화에서 논란이 된 환경보전분담금(입도세) 도입 대신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통한 환경 기초시설 자원 마련 방안을 제시함. 작년 고향사랑기부금이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장기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키워 입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수도권 여론 악화를 경계함.</li> <li>·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유학 지원 약속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대응해 철저한 검역과 잔류농약 검사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감귤 농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또한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확충을 제주도와 서귀포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1차 산업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함.</li> </ul> <p>- <b>미래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인재 양성 협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대,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이 협력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를 에너지 분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함.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에너지 기업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연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임.</li> <li>· 한화오션과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제주를 선박 MRO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함. 제주 신항 건설과 연계하여 민·관·군이 협력하는 MRO 융합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조선업 불모지였던 제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li> </ul>
	<b>청년</b>	<p>- <b>2025 제주 청년통계 및 인구 소멸 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인구 감소 가속화 및 10만 명 선 붕괴 전망 '2025 제주 청년통계' 결과 2050년 제주 청년 인구가 9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해 1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 청년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도외 순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정주 여건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li> <li>· 생활 만족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심리적 위기 제주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주거 여건 만족도는 상승했으나, 고의적 자해율이 급증하</li> </ul>

정치·행정	청년	<p>고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등 정서적 지표는 악화됨. 특히 정신건강 문제 중 '중독'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률은 저조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p> <p>- <b>실질적인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1인 1회' 제한 규정을 폐지함.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 취업과 연계된 시험 응시료를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실비로 지원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도움.</li> <li>· 청년 농업인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시 청년 대상자에게 1.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일 경험을 제공함. 또한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초기 영농 정착을 돕는 등 주거 안정과 소득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li> </ul> <p>- <b>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정책 효능감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 정치적 대표성 강화 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청년과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됨.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이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임.</li> <li>· 청년 주도 정책 제안 및 행정 참여 기회 확대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 원탁 회의와 같은 소통 창구를 활성화함. 통계 조사 결과 청년들의 도정 정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짐.</li> </ul>
	등록	<p>- <b>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절차 시작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입후보 예정자들은 기탁금 1,000만 원(일부 감면 가능)을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열기가 고조됨.</li> <li>· 주요 정당 및 후보군들의 등록 시기 조율 및 눈치싸움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교육감 선거에 송문석 전 교장이 등록했으나, 현직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민주당 주요 경선 후보들은 당내 일정과 전략을 고려해 등록</li> </ul>

정치·행정	등록	<p>시기를 조율하고 있음. 특히 현직 단체장은 직무 정지 부담으로 인해 등록을 늦출 것으로 예상되며, 각 후보 진영은 공천 심사 일정에 맞춰 최적의 등판 시점을 계산하고 있음.</p> <p>- <b>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완화 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버스 등록 대수 기준 20대에서 10대로 완화 추진 제주도의회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기존 버스 20대 이상 보유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이나, 성수기에 도외 전세버스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와 도의 우려가 제기되어 논란이 됨.</li> </ul> <p>- <b>각종 행정 및 프로그램 참여 등록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동아리 등록제 운영을 통한 학습 공동체 지원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 내 자발적인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등록제를 연중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섬. 등록된 동아리에는 평생학습대회 참여와 재능 나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학습 모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li> <li>· 반려동물 및 농업 경영체 등록 등 행정 데이터 정비 제주 농업기술원은 우량 메밀 종자 보급을 위해 채종단지 참여 법인을 모집 및 등록받아 체계적인 종자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소규모 농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확한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진행됨.</li> </ul>
	응답	<p>- <b>수요응답형 버스 '읍서버스' 운행 전면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 전 지역으로 호출형 버스 서비스 확장 운영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수요응답형(DRT) 버스인 '읍서버스' 운행 지역이 기존 애월, 남원 등에서 대정읍과 안덕면을 포함한 도내 모든 읍·면 지역(도서 제외)으로 확대됨. 시물레이션 결과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 거리가 감소하는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임.</li> <li>· 권역 분리 및 운영 방식 효율화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호출형으로, 적은 시간대에는 고정 노선으로 운행하는 탄력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성산·표선 권역을 분리 운영하여 배차 효율을 높임. '바로DRT'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고령층 등 교통 약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함.</li> </ul> <p>- <b>미국산 만다린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주 감귤 가격 방어 및 판촉 대응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제주산 만감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와 정치권이 설 명절 특별 판촉과 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대응</li> </ul>

정치·행정	응답	<p>에 나섬. 오영훈 지사는 정부에 철저한 검역과 잔류농약 검사를 요구하여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p> <p>-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응답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정책 및 선거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응답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도입에 76%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여론을 확인함. 반면 섬식 정류장 등 BRT 고급화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52%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나,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와 요구사항이 설문 응답을 통해 명확히 드러남.</li> </ul>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판매(만감류), 상승, 경영, 평가, 소상공인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판매(만감류)	<p>- 제주 만감류, 대형마트 판촉행사서 목표치 2배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실시한 '만감류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4일간 총 371톤, 판매금액 19억 원의 실적을 기록함. 이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만큼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며 제주산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함.</li> <li>·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전국 500여 개 하나로마트와 홈쇼핑, 온라인 채널 등으로 판촉을 확대하여 총 2,000톤 규모의 판매를 추진할 계획임. 유통사와의 정교한 협업을 통해 소비 접점을 넓히고 제주 만감</li> </ul>
-------	---------	---

<b>경제·관광</b>	<b>판매(만감류)</b>	<p>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산 레드향, 홈쇼핑 첫 방송서 전량 완판 기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홈쇼핑에서 진행한 2026년 첫 레드향 생방송에서 목표 대비 122%인 4,880세트를 판매하며 완판을 기록함. 1시간 만에 1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이번 성과는 경기 둔화와 수입 만다린 공세 속에서도 제주 만감류에 대한 확고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확대 가능성을 증명한 결과로 평가됨.</li> <li>· 법인은 향후 채널별 10회 이상, 총 50회의 추가 방송 편성을 추진하여 연간 홈쇼핑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단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고품질 레드향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하고, 수입 과일 증가에 대응한 국내산 프리미엄 과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임.</li> </ul> </li> <li>- <b>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만감류 특별행사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 100억 원 달성을 기념하여 10만 원 이상 기부자 1만 명에게 만감류 답례품을 최대 67% 증량 제공하는 ‘만감류 하영드림’ 행사를 시작함.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급 조절이 필요한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을 특별 세트로 구성하여 농가 재고 부담을 덜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둬.</li> <li>· 기부자에게는 3만 포인트로 5kg의 만감류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공영관광지 무료 이용이 가능한 ‘탐나는 제주패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독려함. 도는 설 이후에도 흑돼지와 만감류를 결합한 꾸러미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잇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임.</li> </ul> </li> </ul>
	<b>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월 제주 소비자물가 2.0% 상승하며 5개월째 안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1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2%대 초반의 완만한 흐름을 유지함.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0.7%로 꺾이면서 전체 물가 지표의 안정화를 견인했으나,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 위주인 생활물가는 2.6% 상승하여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li> <li>·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앞둔 농축수산물 가격이 5.1% 급등하며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수산물은 12.1% 올라 8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쌀(18.5%), 고등어(29.6%), 국산 쇠고기(5.4%)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명절을 앞둔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li> </ul> </li> <li>- <b>제주 수산물 가격 12.1% 급등하며 8년 만에 최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달 제주지역 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2.1% 오르며 2017년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여 전체 물가 상승분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주도함. 어류와 조개류가 포함된 신선어개 지수는</li> </ul> </li> </ul>

	<b>상승</b>	<p>13.6% 상승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갔고, 이는 기상 여건 변화와 수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품목별로는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가격이 29.6% 폭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복과 조기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 전반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임. 정부와 지자체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및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li> </ul> <p><b>- 제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전년 대비 221% 폭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만 1,901명을 기록하며 전년(6,823명) 대비 221%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나타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함.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피부과(73.6%)와 성형외과 등 제주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와 청정 관광 자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됨.</li> <li>· 외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93.5%)보다 외국인 환자 증가세(135%)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면서 의료관광이 제주 경제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제주도는 이를 기반으로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관광·숙박·교통 등 연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방침임.</li> </ul>
<b>경제·관광</b>	<b>경영</b>	<p><b>- 제주농협, 혁신 성장을 위한 ‘3S 경영원칙’ 본격 가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제주본부는 스마트(Smart), 스피드(Speed), 시너지(Synergy)를 핵심으로 하는 ‘3S 경영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농축협 경영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감. 디지털 업무 혁신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간 협업 강화를 통해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li> <li>· TF는 농축협별 중점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신설된 ‘경영지원 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현장 과제들을 정부 정책 건의로 연결할 계획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과 농축협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제주농협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최종 목표임.</li> </ul> <p><b>- 제주은행, 여성 리더 역할 확대로 조직 역동성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은 과거 자산관리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었던 여성 리더의 역할을 소비자보호, 인사, 경영지원, 디지털 영업 등 핵심 부서 전반으로 전격 확대 배치함. 특히 소비자보호 총괄 수장에 강소영 전무를 발탁하여 여성 경영진의 위상을 높였으며, 36세의 젊은 인재를 디지털영업 부장에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성과 중심 인사를 단행함.</li> <li>· 이번 인사는 현장에서 검증된 여성 리더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는 이희수 은행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됨. 은행은 여성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 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범농협 임직원, 청렴 농협 실현 위한 자정 결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척결과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自淨) 결의대회'를 개최함. '무신불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품 수수 근절 및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li> <li>· 이번 결의는 최근 발생한 내부 사고 등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조직 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재정립하려는 강력한 경영 쇄신 의지를 담고 있음. 제주농협은 윤리 경영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한 행정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제·관광</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도, 바가지 요금 등 논란 축제 '즉시 퇴출' 제도 시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이나 과도한 연예인 섭외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를 도 지정축제 평가에서 즉시 배제하고 3년간 재선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함.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15점으로 5배 확대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부실 운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방침임.</li> <li>· 또한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하여 다국어 안내 체계와 외국인 편의 시설을 잘 갖춘 축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주 축제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번 조치는 제주 관광의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지원 및 보조금 제한과 직결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li> </ul> </li> <li>- <b>제주도,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광역단체 1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제주도가 종합점수 85.26점을 획득하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함. 이는 2023년 10위, 2024년 2위에 이어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제한속도 준수율 항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높은 시민 의식을 입증함.</li> <li>·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분야에서도 정책 이행 및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인정받아 세부 항목 전반에서 A등급을 받는 등 행정적 측면에서도 탁월한 평가를 받음.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안전띠 착용률 및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한 교통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임.</li> </ul> </li> <li>- <b>관광개발사업장 지역경제 기여도 점검 및 실적 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도내 37개 관광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 이행 및 지역경제 기여 실적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함. 현재 누적 투자율은 54% 수준이며, 도민 고용률 84.5%, 지역 건설업체 수주액 증가 등 주요 지표를 면밀히 살펴 사업 승인 시 약속했던 이행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함.</li> </ul> </li> </ul>

	<p><b>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검수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현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장에는 개선 요구 및 이행 강제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 도민 누구나 사업장별 투자액과 고용 실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광 개발의 혜택이 도민 체감으로 연결되는 공정하고 건강한 개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li> </ul>
<p>경제·관광</p>	<p>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금리 부담 완화 위한 '안심 대출전환' 업무협약 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2,000만 원 이하 고금리 소액대출을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사업은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포용 금융을 실현하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전자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복잡했던 차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임.</li> <li>·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절감된 이자 비용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함.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방침임.</li> </ul> </li> <li>- <b>소상공인연합회, 지방선거 출마자에 7대 정책 과제 건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역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1인 자영업자 대체 근로 지원 등 11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공식 건의함. 현행 지정 기준을 15개에서 10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장년층의 창업과 재기를 돕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함.</li> <li>· 특히 1인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경조사 시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전용 기금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함. 연합회는 선거 출마자들이 인기몰이식 공약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인 상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이 제주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임을 재차 확인시킴.</li> </ul> </li> <li>- <b>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399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와 협력하여 2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함.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제공하여 한 달에 최대 8,000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증대를 돕는 상생 모델임.</li> <li>· 또한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고 지역 화폐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연동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결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지자체는 민관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li> </ul> </li> </ul>



	<b>복지</b>	<p>이동지원 서비스 모니터링을,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원 및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를 제언함. 이러한 정책 제언은 고령화되는 장애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임.</p> <p>- <b>도교육청-교사노조, 교원 근무여건 및 복지 합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가 정책협의를 통해 교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기존 900포인트에서 950포인트로 인상하고, 보결수업 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6개 분야 정책과제에 최종 합의함. 또한 수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함.</li> <li>· 유치원 현장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기로 결정함. 이번 합의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적 결과물임.</li> </ul>
<b>지역·사회</b>	<b>지역사회</b>	<p>- <b>수원리, 풍력발전 수익 활용한 파격적 출산장려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해상풍력 단지 사업 수익금을 활용해 최근 아이를 낳은 7가구에 총 5,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섬. 첫째 출산 시 500만 원, 둘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하는 지역 혁신의 우수 사례임.</li> <li>· 마을 주민 667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연간 약 14억 원의 고정 수익금과 운영사로부터 받는 마을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함. 김윤홍 이장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마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향후 청년과 어르신 복지까지 수혜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힘.</li> </ul> <p>- <b>폐교의 재탄생, 지역주민 위한 생활체육·주거 공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교육청이 도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파크골프장이나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휴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함. 신창중학교 부지는 파크골프장으로, 무릉중학교 부지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을 도모함.</li> <li>· 이번 3개년 계획은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목적 대부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을 강화하여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함.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모색하여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li> </ul> <p>- <b>'삼다수 Happy 공모를 통한 지역 돌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개발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이 5억 4,000만 원 규모로 시행되어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정책연계형, 생애주기별 맞춤형,</li> </ul>

지역·사회	지역사회	<p>공간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발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사업은 비영리 법인,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 공유 포럼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할 계획임.</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선거 대비 5대 선거범죄 예방 및 엄정 단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단속 체제에 돌입하며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함.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5명을 편성하고, 다음 달 중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출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함.</li> <li>·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나 선물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와 SNS를 통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임.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예고함.</li> </ul> </li> <li>- <b>노로바이러스 급증에 따른 개인위생 및 방역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가 손 씻기 등 '4대 예방수칙' 실천과 영유아 시설의 환경 모니터링 등 선제적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함. 최근 10주간 신고 환자 수가 95명에 달하며, 특히 소아·청소년층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짐.</li> <li>·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 일상 속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며, 도는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 관리를 지도하고 안전한 조리 수칙 준수를 당부함.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위생 수칙 실천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li> </ul> </li> <li>- <b>AI 기반 중증심혈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병원과 소방안전본부 등이 협력하여 AI 기반 심전도 분석 기기 (ECG Buddy)를 119구급대에 도입, 현장 측정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이는 환자 이송 단계부터 진단과 치료 준비를 연계하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기반 협력 체계임.</li> <li>·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대병원은 의료 자문과 중재 기술을, 소방안전본부는 실시간 정보 전송과 이송을, (주)알피는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최국명 병원장은 이번 체계 구축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li> </ul> </li> </ul>
	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 조기 달성 및 폐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나눔캠페인이 도민과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에 힘입어 목표액인 43억 2,000만 원을 초과한 44억 6,500만 원을 모금하며 사랑의 온도 103.3도를 기록함. 캠페인 초반에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새해 들어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지난해보다 이틀 빠르게 목표를 달성함.</li> <li>· 이번 캠페인의 성공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도민들의 나</li> </ul> </li> </ul>

지역·사회	성금	<p>높 정신이 발휘된 결과이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임. 폐막식에서 강지언 회장은 도민들의 참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힘.</p> <p>- 도내 주요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 성금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개발공사가 7억 5,000만 원, 제주농협이 5억 7,000만 원,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9,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도내 주요 기업들의 고액 기부가 사랑의 온도탑 상승을 견인함. 또한 향운노동조합, 고향주부모임 등 직능 단체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함.</li> <li>· 기업과 단체들의 이러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기탁된 성금은 기후변화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li> </ul> <p>- 익명 기부자와 소액 기부자가 만든 나눔의 기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동안 모은 동전과 지폐 봉투를 두고 간 익명의 기부자부터 독서량에 맞춰 기부금을 조성한 초등학생들까지, 개인들의 진심 어린 참여가 캠페인의 의미를 더함. 또한 개인 1호 기부자인 강대철·김복엽 부부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참여도 이어져 나눔의 온기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함.</li> <li>· 골프동호회, 오메기떡 업체 등 소규모 모임과 자영업자들도 수익금 일부를 기탁하거나 물품을 후원하며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함. 이러한 풀뿌리 기부 문화는 제주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달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li> </ul>
	차량	<p>-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 수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운전자를 구속 송치함. 사고 기록 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5초 전부터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작동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지 않음.</li> <li>· 운전자는 사고 당시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과 신발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 미숙(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림. 이번 수사 결과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대형 인명 피해를 낸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됨.</li> </ul> <p>-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등록 비중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림권역에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추가 투입하고 전용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최대 374km 운행이 가능한 대형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li> <li>· 제주도 내 친환경차 등록 비중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를 돌파(22.3%)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전기차는 6만 대를 넘어섰고 하이브리드차는 10만 대를 돌파하는 등 5년 사이 친환경차 대수가 4배 이상 증가하여 제주가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임을 입증함.</li> </ul> <p>-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의무화</p>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제주도는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 관리자 등의 이행을 독려함. 이는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임.</li> <li>·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 시설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안전한 충전 환경이 전기차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